

시중은행, 빗썸 등 거래소 4곳 실명계좌 재계약 심사 착수

금융당국 '자금세탁 의무강화'에 은행들, '관리부담'... 재계약 고심
KB·하나·우리 등 체결계획 없어
중소형거래소들 줄퇴출 위기감

| | | | |
|--|--|--|--|
| 비트코인 (BTC) ₩ 45,386,000 +200,000 (+0.5%) ▲ | 이더리움 (ETH) ₩ 2,838,000 +21,000 (+0.7%) ▲ | 바이낸스코인 (BNB) ₩ 416,900 +12,000 (+3.0%) ▲ | 에이다 (ADA) ₩ 1,788 +35 (+2.0%) ▲ |
| 도지코인 (DOGE) ₩ 366.2 +9.1 (+2.5%) ▲ | 리플 (XRP) ₩ 1,006 +41 (+4.2%) ▲ | 폴카닷 (DOT) ₩ 27,530 +800 (+3.0%) ▲ | 유니스왑 (UNI) ₩ 26,310 +500 (+2.0%) ▲ |
| 비트코인 캐시 (BCH) ₩ 714,500 +35,000 (+5.2%) ▲ | 라이트코인 (LTC) ₩ 199,500 +5,600 (+2.8%) ▲ | 체인링크 (LINK) ₩ 28,070 +200 (+0.7%) ▲ | 이더 (ETH) ₩ 1,764 +35 (+2.0%) ▲ |
| 세타론 (THETA) ₩ 10,200 +200 (+2.0%) ▲ | 스텔라루멘 (XLM) ₩ 379.5 +10 (+2.7%) ▲ | 비체인 (VET) ₩ 127.5 +3 (+2.4%) ▲ | |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시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의 실명계좌 재계약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시중은행이 이들을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 검토 작업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기존에 실명계좌 발급이 이뤄졌던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과 실명계좌 재휴를 맺은 상태다. 케이뱅크는 이미 지난달부터 업비트와의 평가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서면 중심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각각 평가를 위한 자료를 넘겨 받고 서면평가를 시작했다.

그간에는 제휴은행들이 예치금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누렸지만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강화하면서 관리 부담이 커져 재계약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업권에서는 4대 거래소에 한해서는 실명계좌 제휴 재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제기되지만 이

들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은행 측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잡코인이 많은 수록 평가에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당국의 방침에 의해 자체 상장 코인을 막는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업비트에서는 5종목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18일에도 유의종목 25종 중 24개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등 '잡코인' 정리를 단행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4대 거래소에 한해서는 실명계좌 제휴를 통해 사업을 이어온 만큼,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낫다"며 "그러나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4대 거래소 중 일부는 신고 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간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4대 거래소를 포함해 총 20개에 이른다. 이들 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무더기 퇴출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달에 KB국민·하나·우리은행에서 실명계좌를 체결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지난 10일 부산은행도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거절하면서 중소형거래소들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ISMS인증을 획득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을 이어온 은행 중 일부에서 계좌 발급을 거절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4대 거래소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사업성을 보유한 만큼 신고 요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내달 수도권 6인까지 모임 가능해 진다

중대본, 거리두기 체계 4단계 완화
수도권 2단계... 15일 8인 모임 허용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6인까지 사회적 모임이 허용된다.

정부는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완화하는 새로운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개편안이 적용되면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을 포함해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관련기사 3·4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7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첫 2주는 최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할 계획이다. 오후 10시까지만 영업 제한도 밤 12시까지 가능해진다. 1단계까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다음 달 1일부터 사라진다. 4단계로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경우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

/이세경 기자 seilee@

이재용, 내달 복역률 60% 가석방 기준 충족

'가석방' 취업 불가 경영복귀 어려워
재계 "사면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곧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와대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는 경영 복귀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7월 28일 복역률 60%를 채우게 된다.

법무부 예규상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는 것.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라 지난 달 가석방 기준을 60%로 완화한 바 있다. 형법상으로는 형기 3분의 1이라 이 부회장은 가석방 대상이다.

앞서 재계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요구를 이어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등에 사면을 건의했고, 정계에서도 사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무게가 실린 것은 이달 초부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주당 대표가 이달 초 이 부회장을 사면하기 보다는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 청와대에서는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경영 복귀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가석방은 5년간 취업이 불가능한데다가, 해외 출국도 쉽지 않다.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해서 활동에도 제약이 크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최근 들어 다시 사면 요구를 꺼낸 것도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사면 요구는 경영 복귀를 위해서였는데, 가석방으로 풀려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 부회장을 정치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재계 요구 사항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 사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온·오프라인 창업

↓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

동국제강, 온라인 플랫폼 '스틸샷닷컴' 오픈

>> 1면 '철강도 후도 이커머스'서 계속

이어 "온라인 판매 도입은 소비자가 차량 예약 및 구매, 고객 상담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했을 뿐"이라며 "고객이 선택한 차량에 대한 최종 단계는 담당 딜러가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영업, 온라인 판매 등의 트렌드는 철강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동국제강은 지난 달 24일 철강 제품 온라인 판매 전문 플랫폼 '스틸샷닷컴'을 오픈했다. 스틸샷닷컴은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 종류와 사이즈를 최단 납기(7일 이내)로 생산·출하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갖추고 있다. 고객이 요청한 규격과 치수에 맞게 제품을 절단해 제공하거나 긴급 주문이 필요한 고객에게 빠르게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포스코는 철강수급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철강수업계를 위해 수출 예정 물량 2만톤을 긴급히 내수로 전환해 지난 10~17일 온라인 특별판매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식 온라인 판매 창구인 스틸트레이드의 신규가입 회원사는 23% 급증했으며, 판매 대상 물량은 판매 개시 당일 92%가 판매되는 등 조기 완판됐다. 포스코는 7월에는 물량을 3만톤으로 늘리고 대상 제품도 확대해 온라인 특별 판매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